

# 새만금 발전방안 모색 포럼 개최

### 군산시, 각계 전문가·시민 100여명 참석... 새만금 미래에 대한 청사진 제시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지난 31일 새만금 기본계획의 지표를 제시할 대로 논의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새만금 발전방안 모색 포럼'을 개최했다. 관련 전문가와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원광대학교 이경찬 교수의 '불확실성과 지역발전'에 대응하는 새만금 미래개발 전략을 기초발표로 하여 새만금의 공간구조 설정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군산대학교 박승규 교수는 '국가발전'을 위한 새만금 산업단지 확충 전략을 발표하며 기업 친화적 공간제공을 통한 투자 가속화라는 정부

의 재수립 목적에 부합한 산업단지 확대의 필요성과 논리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발제를 맡은 이국용 교수는 '군산새만금신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복합용지 활용전략'을 발제하여 미래형 친환경 선박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새만금의 발전 방향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내부 개발계획을 설명했다. 발표 후 도시계획 권위자들로 구성된 종합토론은 새만금개발청장을 역임했던 전북대학교 김현숙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또한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역임 중인 원광대학교 최봉문 교수와 발제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기본계획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진취적인 대화를 나눴다.

강임준 군산시장장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건의 내용에 반영할 것이며, 새만금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필요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기자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산동성 웨이하이시에서 개최된 '제8회 군산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에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을 대표로 군산시 출장단이 참석했다.

## '군산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

### 군산시, 13개 중국 자매우호도시와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 논의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산동성 웨이하이시에서 개최된 '제8회 군산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에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을 대표로 군산시 출장단이 참석했다.

본 교류회는 군산시와 군산 중국사 무소가 주최하는 행사로 웨이하이시를 비롯한 11개 중국 자매우호도시가 참가했다.

웨이하이시는 산동반도 최동단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신라시대 장보고가 창건한 적산법화원이 있어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도시이다.

엔타이와 청다오를 잇는 교통의 요지인 웨이하이시는 군산시와 2014년 10월 국제 우호도시 관계를 체결한 이래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류회는 '한·중 교류강화를 통한 지방정부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군산시, 웨이하이, 칭위안, 베이하이시의 주제발표와 더불어 좌담회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다.

군산시는 자매우호도시 교류회를 통하여 중국 내 13개 지방도시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도시별 우수시책을 공유하는 등 군산을 중심으로 한 중·중 도시 간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제8회 군산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를 통해 군산을 더욱 알리고 자매우호도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우호도시 체결 21주년을 맞이한 항저우 푸양구를 28일에 방문하여 관계자와 간담을 통하여 경제·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간 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현재 군산시는 중국 내 6개 성에 소재하고 있는 13개 도시와 국제 우호관계를 맺고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우호교류 추진에 나서고 있다.

/군산=이재춘기자

## 지역 소식통

### 2024년 군산시 시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시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4년도 군산시 시민참여 예산학교'가 지난 31일 열렸다.

'시민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참여 예산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이날 교육은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및 읍면동 지역위원회의 위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민철 강사('함께하는시민행동' 시민참여예산국장)와 함께 △지방재정의 구성 및 이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이해와 운영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공유 및 제안사업 발굴 과정 등을 진행했다.

군산시는 이번 교육으로 연이어 진행되는 제안사업 공모 기간을 통해 다양한 사업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이재춘기자

### '인사 청탁 금지' ... 익산시 '3차 청렴주의보' 발령

익산시가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인사 청탁 금지 규정을 알리는 '3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3차 청렴주의보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인사 청탁 금지 규정'에 관한 것으로 △인사 청탁 금지 규정 △인사 부정청탁 금지 사례 △권익위 인사청탁에 관한 유권 해석 등을 안내한다.

청렴주의보는 익산시가 2024년 첫 시행한 반부패·청렴 정책이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해 부패행위를 방지한다.

지난 설 명절 기간 1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해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절 선물 등 수수 금지 규정을 안내했다.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중립 의무 규정'에 관해 2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 "가깝고 안전하게" 이리송학초 통학로 생겼다

### 익산시, 4억 1000만원 투입 1km 우회하던 통학길 220m로 단축... 통학로 CCTV 설치

주인 숙원이었던 '이리송학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이 마무리되면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빠른 통학로가 가능해졌다.

익산시는 총사업비 4억 1000만원을 투입, 송학초 인근에 폭 3m 길이 220m의 통학로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익산시의원,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완공된 통학로를 직접 걸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통학길이 1km에서 220m로 대폭 감소하면서 앞으로 이리송학초 재학생 398명 중 29% 가량이 104명이 신설된 통

학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이리송학초는 마땅한 통학로가 없어 학생들이 인근 주거단지부터 골프장을 끼고 크게 우회하는 방법으로 도로 1km 가량을 이동해야 했다. 이런 위험천만하고 불편한 상황 때문에 수년 전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통학로 개설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정현을 시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 학부모 등 관계자들을 만나 직접 의견을 듣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통학로 편입 필지에는 사유지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토지들이 있었으나 모두가 한바탕으로

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지 매투어 공사 마무리까지 적극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차권과 행정, 지역사회가 힘을 합한 결과 지난해 9월 착공하고, 5월 준공이 이뤄졌다. 추가로 시는 더욱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새롭게 조성된 통학로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로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무더위 썩 날린다' ... 익산시, 도심 공원 수경시설 가동

익산시가 더워지는 날씨로 지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환경을 제공한다.

시는 휴서기 폭염을 대비해 6월부터 8월까지 도심 공원에 설치된 수경시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익산시에는 중앙·배산·수도산 체육공원을 비롯한 15개 도심 공원에 △바다분수 6개소 △롤링포그 1개소 △분수 9개소 △실개천 4개소 △발물놀이터 1개소 등 총 21개의 수경시설이

설치돼 있다.

수경시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5~6회, 회당 40~60분씩 가동한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산휴면

공원의 발물놀이터는 8월 한 달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시는 본격적인 수경시설 가동에 앞서 시설점검과 청소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운영 기간 주 1회 이상 수질검사와 2주마다 청소작업으로 위생을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더위를 폭염을 앞두고 시민들이 잠깐이나마 무더위를 해소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수경시설을 운영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점검과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원광대 신입생 익산 명소 여행 '대만족'

익산시가 익산문화관광재단, 원광대학교와 함께 진행한 교양필수과목 연계 익산 명소 여행이 원광대 신입생들의 큰 호응속에 마무리됐다.

익산시는 지난 3월부터 5월 31일까지 원광대학교 36개 학과에서 1,224명의 신입생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아가페정원, 교도소세트장, 고스락, 미륵사지 등 주요 관광지와 문화유산을 탐방하며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동축제를 통해 지역의 볼거리와 재미를 만끽하고, 부여마다 문화관광해설가 동행해 학생들이 관광지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익산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입소문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익산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해 익산의 관광자원과 문화유산 가치를 알리고 젊은 층의 관심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원광대학교 학생들의 익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번 여행이 신입생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연령대에 맞고 여행 수요에 맞는 색(色)다른 관광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